인천아트플랫폼 8기 입주 작가 '플랫폼살롱'

"반갑습니다." 새로운 입주 작가들을 만나는 자리

'살롱'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헤어살롱', '뷰티살롱'과 같은 미용실의 이미지를 떠올린다. 요즘은 미용실이나 다과점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하지만, 살롱이라는 단어는 본래 객실이나 응접실을 뜻하는 단어였다. 17-18세기에는 귀족 부인들이 응접실을 개방하고 다른 귀족들과 문인들을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하고 작품을 읽으며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던 사교모임을 의미하는 말이 되었다. 이후에는 문인뿐만 아니라 미술가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면서 미술작품을 소개하고 서로 비평하는 자리로 발전했다.

지난 3월 29일 오후 2시, 인천아트플랫폼 B동 전시장 2층에서도 살롱이 열렸다. 고풍스러운 분위기의 테이블과 의자, 그리고 샹들리에까지. 18세기 프랑스에서 열리던 살롱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놓은 듯 했다. 인천아트플랫폼의 '플랫폼 살롱'은 8기 입주작가 프리뷰 전시 <2017 IAP 단편선>과 함께 진행하는 행사로, 이제 막 입주한 작가들이 본인의 작업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대중 또는 다른 입주작가들과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다. '플랫폼 살롱'의 첫 날이었던 당일의 주인공은 시각예술 분야의 강주현 작가, 범진용 작가와 공연예술 분야의 서영주 작가였으며, 인천아트플랫폼 이영리 큐레이터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맨 처음 발표를 진행한 강주현 작가는 사진과 드로잉을 통해 경험한 감각을 담아낸 작업들을 소개했다. 작가는 제주도 바닷가 시골마을에서 나고 자라며 느꼈던 자연에 대한 감성을 사진에 담고 싶었지만 사진 한 장에 담아내기는 역부족이라고 느꼈다. 대신 '사진조각', '사진드로잉'과 같은 새로운 방식을 통해 사진을 변형하고 재구성하여 자신이 감각하고 경험한 대상을 구현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감각에 초점을 맞춘 작가는 오감을 느끼는 직업을 가진 운동선수, 미술가, 요리사 등을 인터뷰하였으며, 사진을 촬영하고 인화한 뒤 잘게 잘라 이어붙이는 형식으로 <DUPE-STYLE>이라는 작품을 만들었다.

이후 사물의 움직임에 초점을 두고, 움직임을 과학적으로 구현하는 방식을 고안했다. 애니메이션에서 연속동작으로 움직임을 보여주는 방식에 착안하여 선을 통해 움직임을 표현하는 설치 작업 <SKIN SUIT>을 진행했다. 그는 피부가 감정을 가장 마지막으로 드러내며 타인을 마주하는 가장 첫 번째 부분이며, 사진이 대상을 만나고 포착하는 순간이 피부와 같다고 인식했다. 또한 <떨어지는 의자> 작업에서는 드로잉의 결과물을 수많은 중첩을 통해 입체로 만들고 떨어지는 행위, 움직임을 표현하기도 했다. 버려진 오브제를 작은 선 단위로 쪼개 움직임을 표현하는 일련의 작품들을 보며 한 관객은 '몇 개월간의 수고로운 작업으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섬세한 그의 작업에서 노동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범진용 작가는 20년간 꿈 일기를 써오면서 마주한, 현실에 없는 인물들과 이야기를 작업으로 연결했다. 초기에는 유화를 이용하여 꿈속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을 표현하거나 자각몽(루시드 드림)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렸다. 이후에는 도시 하천이나 폐쇄된 공원 등 현실 속에서 버려진 공간을 포착하여 꿈속의 인물들을 현실 공간에 배치해보는 작업을 하기도 했다. 그는 보통 어두운 내용의 꿈을 작업으로 연결하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적인 소모가 크기 때문에 현실의 버려진 풍경을 그리며 작업의 균형을 맞춘다고 말했다.

8기 입주작가로 이날 '플랫폼 살롱'을 방문한 김순임 작가 역시 꿈을 소재로 다양한 작업을 해왔다. 같은 소재로 작업한 범진용 작가의 작품들에 대해 김순임 작가는 '꿈의 스토리를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 기억이 날아가기 전에 급하게 키워드를 적거나 드로잉으로 기록하고는 한다. 꿈을 소재로 한다는 점에서 범진용 작가의 작업과 공통점이 있지만, 범 작가의 작업은 즉각적인 꿈의 기록이라기보다 콜라주의 방식으로 엮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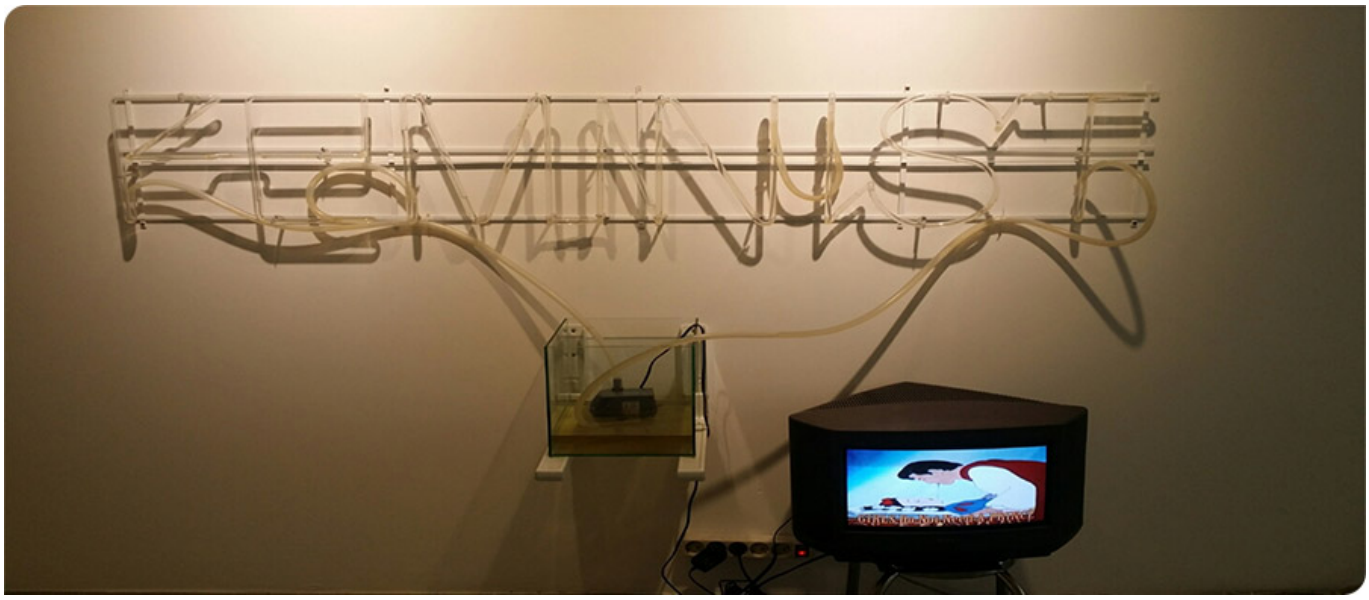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발표한 서영주 작가는 공연예술 분야 입주작가로, 지난해 인천아트플랫폼에 3개월 간 단기 입주했던 것을 계기로 올해 1년 더 인천에서의 활동을 이어가게 되었다. 작가는 통증과 상흔을 주제로 일관성 있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초기작 <페이퍼맨의 추락>에서 만든 종이인형을 지속적으로 작품에 등장시켜 자신을 대변하고 관객을 만나는 매개로 사용한다. 종이라는 재질이 지니는 연약함과 불안정함을 자아를 드러내는 데에 적합한 요소로 보았다. 작가는 무대 위의 퍼포먼스 뿐 아니라 공연 영상을 촬영하고 재구성하거나 설치 작업으로 연결하는 등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할 계획이다.

시각예술을 기반으로 시작해 공연예술 작업을 하고 있는 서영주 작가에 대해 동료 작가들은 '한 가지 분야를 선택하지 않은 채 경계가 모호한 작업을 이어간다면 각각의 분야에서 완성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다'는 우려를 보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영주 작가는 '<다뤄지지 않은 상흔>에서 설치와 퍼포먼스를 동시에 진행한 것이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퍼포먼스 이후의 설치작업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도 '인천아트플랫폼에 입주하는 이번 1년 동안 해결해야 하는 숙제를 정확히 짚어주셨다. 작업의 장르에 대한 분류는 이미 하고 있고, 이제 선택해야 할 때인 것 같다.'고 대답했다.

이처럼 '플랫폼 살롱'은 단순히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다양한 관객들, 동료 작가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더욱 발전적인 작품 활동을 모색하는 자리로 이어졌다. '플랫폼 살롱'은 오는 4월 14일까지 매주 수, 금요일 오후 2시 인천아트플랫폼 B동 전시장 2층에서 진행되며, 매 회 3-4개 팀이 한 시간씩 작품소개와 관객과의 대화 시간을 진행한다. 8기 입주작가들의 프리뷰 전시인 <2017 IAP 단편선>은 오는 4월 30일까지 이어진다. 관람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3.0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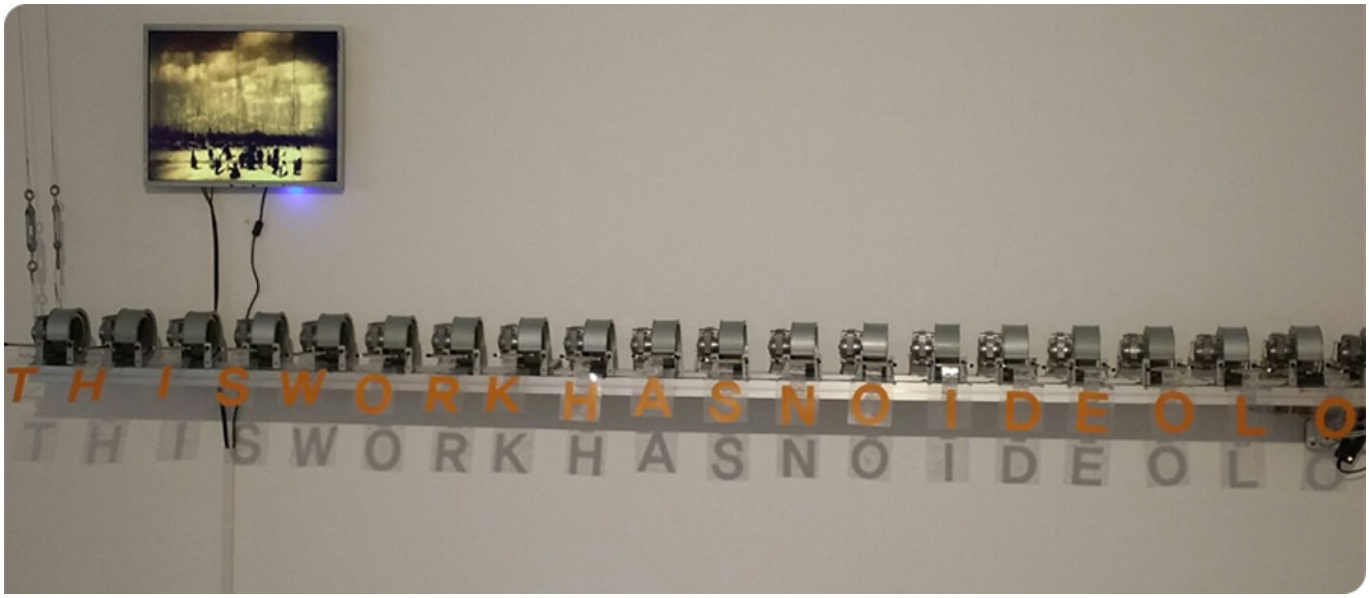
3월 23일부터 4월 28일까지 인천문화재단과 우리미술관이 주최한 '불완전한 인간' 전시가 인천 동구 우리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인간의 내면과 외면을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의 생각부터 출발한 전시는 우리 모두가 불완전한 인간이란걸 보여준다. 자신 안에서 반복하여 고뇌하는 뇌와 마음 간의 이질적 상호작용, 내면과 외면의 온도 차이에 의한 불완전함으로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이다. 이러한 불완전함은 느린데 빠르거나, 자연스럽지만 기계적인 느낌과 같은 모호한 감정들을 생성한다. 작가들은 이번 전시에 다양한 불완전한 감정들이 섞여있다고 말한다. 깨끗한 논리의 반영, 사회적 공간에 있지만 개인적인 것을 추구하는 감성, 세상을 움직이고 싶지만 그 또한 세상의 부품이라는 이율배반적 의미, 깨어있지만 꿈을 좇는 행위, 망각된 것을 다시 현재에 기억되게 만드는 노력이 그것이다. 이러한 작가들의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이 표현된 작품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인세인박, [페미니스트])

인세인박 작가의 <페미니스트> 작품은 백설공주와 왕자의 입맞춤이 방송되는 텔레비전과 그 옆에 페미니스트라는 영문 글자가 물줄기로 인해 그려지게 되는 작품이다. 백설공주와 왕자의 입맞춤 밑에는 '그녀는 왕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김유석, [Breath])

김유석 작가의 <Breath>이라는 작품은 외부인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내부 센서를 통한 허파의 움직임으로 불안한 인간의 감정을 표현한 작품이다. 작품에 가까이 다가가면 정상적인 허파의 움직임이 빠르고 불안하게 뛰박질하게 된다.



(박종영, [Marionette-eye])

박종영 작가의 <Marionette-eye> 작품은 나무 소재의 상반신의 사람 모양의 얼굴에 있는 눈이 센서에 의해 사람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작품이다. 해당 작품 옆에 똑같은 사람 모양의 얼굴에 피노키오를 형상화하는 꽃이 달린 코 또한 센서에 따라 움직인다.

(이탈, [This Work Has No Ideolo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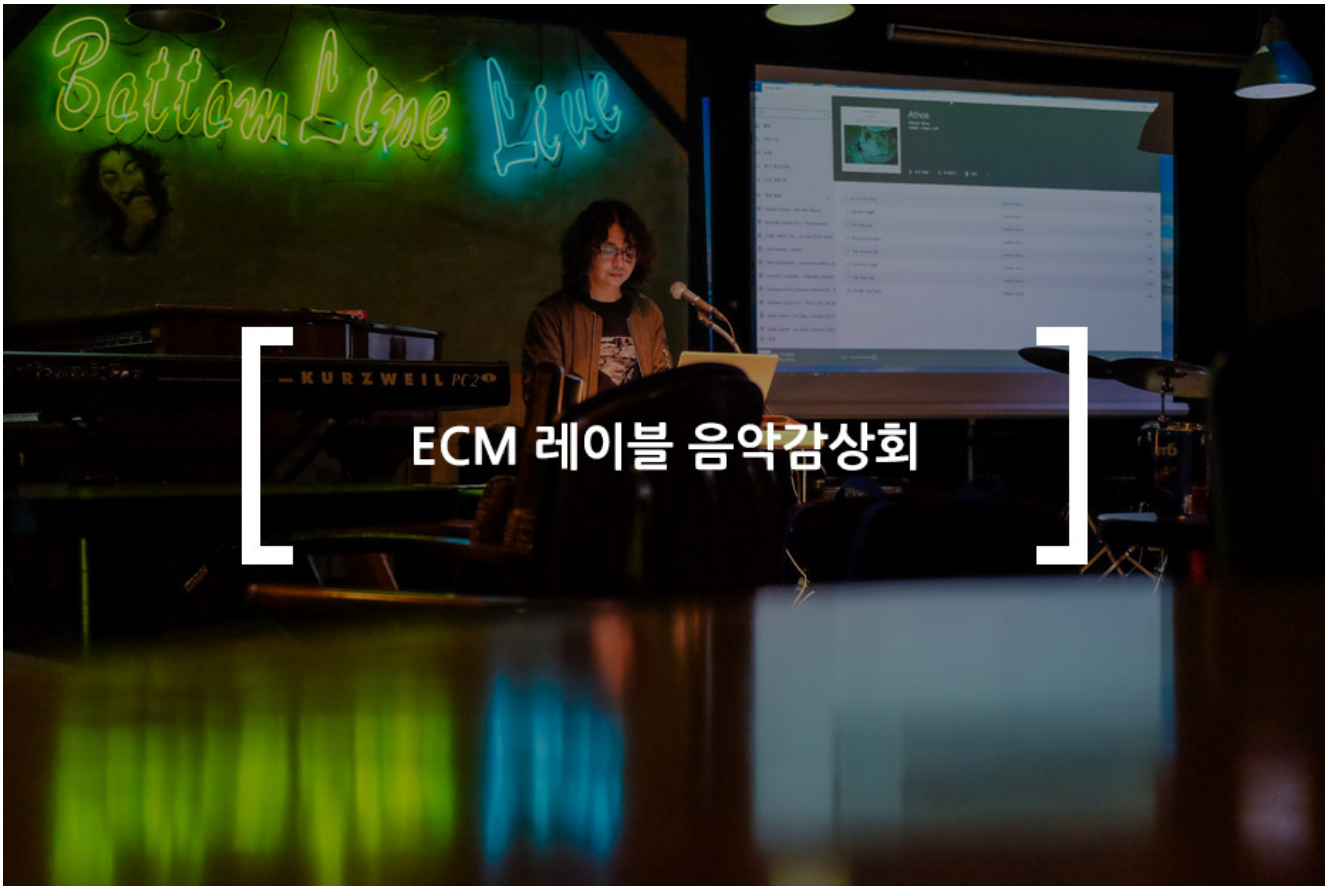
이탈 작가의 <This Work Has No Ideology>는 작품 제목의 'This Work Has No Ideology' 영문자 판넬들이 소음, 접촉이 발생하게 되면 흩날리게 되는 작품이다. 흩날리는 판넬들이 우리의 불안한 심리를 표현해 준다.

(송희정, [Eye_holes-3])

송희정 작가의 <Eye_holes-3>의 작품은 작가의 실제 꿈에서 나타났던 일들을 작품으로 형상화 한 것이다. 작가가 그날 꿈을 꾸었던 날 덮었던 이불로 꿈에서 나타났던 형상 그대로의 옷을 갑옷처럼 여자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 또한 작가가 직접 꿈에서 일어났었던 일들을 영상과 음성으로 전달해준다.

이번 전시를 관람하며 인간의 불완전함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서로 모순되는 이질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 이러한 감정들은 작가들이 작품에 표현했던 것처럼 깨어있지만 꿈을 좇는 행위와 같이 우리는 현실에서 수많은 경험,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겪고 있다. 이러한 '이질적인 감정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창조될 때부터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질적인 감정들이 떠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이러한 감정들을 겪으며 그 자체로 이미 불완전하기도 하지만 이미 완성된 인간이다. 작가들이 불완전한 인간에 대해 표현한 이번 전시를 한번 둘러보는 건 어떨까 ?

글/ 최승주 문화통신3.0 시민기자



2017 IAP 단편선 — 인천아트플랫폼 8기 입주작가 프리뷰 전시

촬영, 편집, 구성/ 김유라 문화통신 3.0 시민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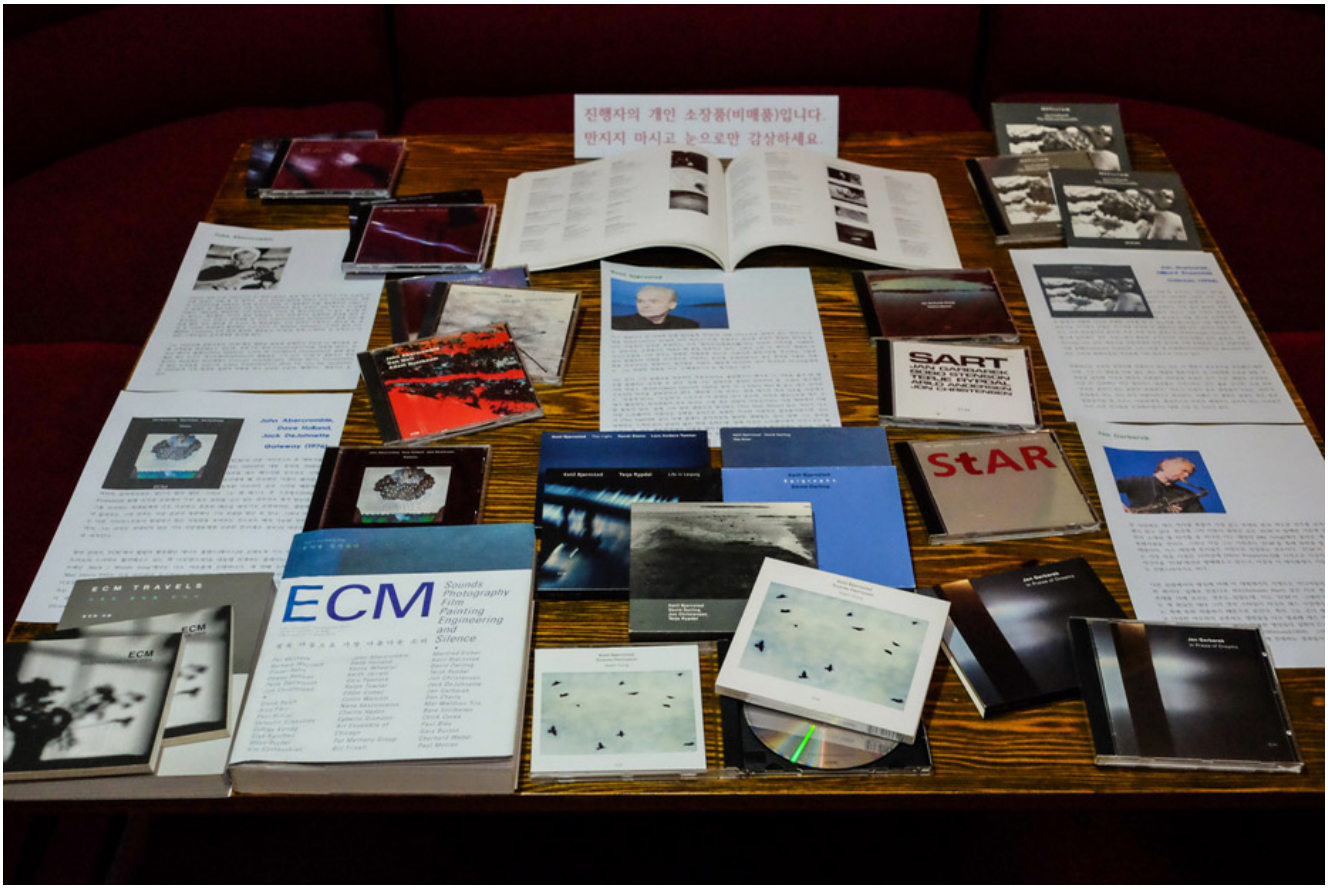
버텀라인 3월 11일 ECM레이블 음악감상회

Anat Fort
A Long Story
Perry Robinson
Ed Schuller
Paul Motian
Julia Hülsmann Trio
Sooner and Later
ECM
Louis Sclavis
Wolfert Brederode Quartet
Currents
ECM

개인 소장품(비매품)입니다.
지고 눈으로만 감상하세요.

진행하는 개인 소장품이에요입니다.
만지지 마시고 눈으로만 감상하세요.

KEITH JARRETT
SUN BEAR CONCERTS
PIANO SOLO
サンベア・コンサート
ECM


진행자의 개인 소장품(비매품)입니다.
만지지 마시고 눈으로만 감상하세요.
SART
StAR
ECM
Sounds
Photography
Film
Painting
Engineering
and
Silence
ECM TRAVELS

한국 재즈 100년사
FUJIFILM
BRAUN

진행자의 개인 소장품(비매품)입니다.
만지지 마시고 눈으로만 감상하세요.
Roscoe Mitchell
The Note Factory
Far Side
Vassilis Tsabropoulos
The Promise
Pierre Favre Ensemble
Fleuve
ECM
Vassilis Tsabropoulos
Savina Yannatou
O Primavera en Salonico
Sumiglia
Marilyn Crispell Trio

Bobo Stenson,
Anders Jormin,
Paul Motian
Goodbye (2005)
Enrico Rava
Stefano Bollani
New York Days
Enrico Rava
Stefano Bollani
The Third Man
Dave Holland Quintet
Extended Play
Dave Holland Quintet
Dave Holland Quintet
Prime Direct
Arild Andersen Group

John Abercrombie
Dan Wall
Adam Nussbaum
John Abercrombie Trio
Dan Wall Adam Nussbaum
ECM
Ketil Bjørnstad

Officium
Jan Garbarek
The Hilliard Ensemble
Jan Garbarek Group
Twelve Moons
ECM
SART
JAN GARBAR
BOBO ST
Jan Garbarek,
Hilliard Ensemble
Officium (1994)

underwood
제11회
국제재즈페스
(FRI)-5 (SUN)

진행자의 개인 소장품(비매품)입니다.
만지지 마시고 눈으로만 감상하세요.

Live
Evening Falls
BOTTOM LINE
since 1983
PC2

Live
Evening Falls
BOTTOM LINE
since 1983
PC2

Bottom Line Live

Bottom Line Live

Bottom Line Live

BottomLine Live
KURZWEIL PC2

BottomLine Live
KURZWEIL PC2
Athos

BOTTOM LINE
since 1983

33
BOTTOM LINE
SOUL BAND

Stanley Turrentine
SATCHMO
ROLLIN' WIT

Keith Jarrett piano
Gary Peacock double bass
Jack DeJohnette drums
Recorded live July 22, 2001 at the Montreux Jazz Festival
2-CD Set

chick corea - return to forever
ECM
ECM

ECM (Germany, 1969~)
지금까지도 CEO로서 굳건한 자리를 지켜오고 있는 창립자이자 빼놓을 수 없는 오너로서
라 출신의 만프레드 아이허(Manfred Eicher)가 1969년 16,000마르크(지금의 돈으로 가치로
환산하면 약 2,600만원)의 돈을 가지고 부도 직전의 레이블 'Japo'를 인수하면서 첫 번째
발걸음을 시작한 ECM 레이블은 지금은 현대 재즈의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을 정도
로 그 위상을 자랑 중에 있다.
ECM의 설립 모토는 "The Best Sound Next To Silence". 번역하자면 '침묵 다음으로 가
장 아름다운 소리'다. 지난 2013년 인사동에서 열렸던 ECM 전시회의 제목 자체가 이 레이
블의 모토를 그대로 직역했던 것. 클래식계에서 활동했던 오너의 특징이 녹음에서도 그대로
특징으로 나타나는데, 다른 재즈 레이블이 고음역을 강조하는 등의 기법으로 최대한 소리의 해
것에 반해, ECM은 현장 그대로 혹은 중음역을 강조하는 등의 기법으로 최대한 소리의 해
곡을 사양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클래식의 녹음 방식이 재즈에 어울린 것으로
최대한 연주자 옆에서 듣는 듯한 현장감을 전달해 주는 것에 목표를 두고 일기에 나타나는
특징이었다. 이러한 특징은 이후 클래식 앨범이 주로 제작되는 ECM New Series의 한계
의 중요한 배경이 되기도 했다.

※ 안 내 문 ※
현재 'ECM' 음악감상회 + 전시회
'침묵 다음으로 가장 아름다운 소리'
진행 중입니다. (오후 7시~9시)

DVD PLAYER DV-533K
CDP-1000
PITCH
CUE
QUARTZ

Pioneer
PROFESSIONAL CD/USB PLAYER
CDP-1000
CDP-1000
QUARTZ

MUSIC TRAVEL IN BOTTOM LINE
ECM
레이블 음악감상회
2017. 3. 11. SAT. 7PM
Bottom Line 주최 음악감상회 :
[ECM] 레이블 - 참목 다음으로 가장 아름다운 소리 안내 팸플릿
- 목 차 -
[ECM 레이블 시리즈] ECM Records Vol. 1 : '현대 재즈의 가장 활발한 산실(産室)'
[ECM 레이블 시리즈] ECM Records Vol. 2 : 'Contemporary ECM의 모습'
[ECM 레이블 시리즈] ECM Records Vol. 3 : 'ECM Masterpieces'
[ECM 레이블 시리즈] ECM Records Vol. 4 : 'Hidden Treasures'
※ Warning!
• 본 인쇄물에 게재된 모든 글은 2014년 고음질 음원 사이트 그루버스(www.groovers
대중음악 전문 월간지 '52street'에 기고했던 결과물을 모든 것으로, 해당 인쇄물에
다. 무단 도용 등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CM Sampler CD
: The Best Sound Next To Silence
ECM

KEITH JARRETT
THE KÖLN CONCERT

Bottom Line
SAMSUNG

MENU
MOVIE
DISP
C3
REC
9:52
1/60
F3.2
ISO AUTO
SONY
X10

Live

Bottom Line Live
Hartke
BOTTOM LINE
since 1983

＊ 갤러리 사진을 누르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버텀라인 **3**월 **10**일 더 뉴 재즈 밴드 공연

BottomLine Live

BottomLine Live

Bottom Line Live
KURZWEI

B·LINE
B·LINE
B·LINE

JAZZ
IN PARADISE™
ST. CROIX JAZZ & CARIBBEAN MUSIC & ART FESTIVAL
October 14–24, 1993
St.Croix United States Virgin Islands

Bottom Line Live

보양식
762-4
Stanley Turrentine
SATCHMO
ROLLIN WITH

Bottom Line Live
KURZWEIL
BOTTOM LINE
since 1983

Bottom Line Live
Bottom Line
People & People

Bottom Line Live

BottomLine Live

BottomLine Live

CHET BAKER
LOU DONALDSON
Stanley
Turrentine
The
Sugar
SATCHMO
SARAH
VAUGHAN
ELLA
FITZGERALD
SAZABAND

KURZWEIL PC2

Bottom
Line
People & People.
Autumn in Jazz
2008.9.19 FRI~21 SUN 문화일보홀

FUNK BAND
Thierry Maillard Trio
BOTTOMLINE
Legend Blues Guitarist
김목경
Kumi Adachi
Shuji Hata
Jazz Night
THE BIRD
B-LINE
PENTAPORT
LIVE CLUB

ottom Line
People & People
JAZZ
IN PARADISE
October 14-24, 1993

BottomLine Live
3 MARCH
2017
03
FRI PM9
최용민 Quintet
09
THU PM9
김형섭 Quintet
10
FRI PM9
The New Jazz B
11
SAT PM7
재즈 레이블ECM
17
FRI PM9
SAZA 최우준 밴드
23
THU PM9
Archis
24
FRI PM9
T.L.B.G Group
31
FRI PM9
김형준 밴드

TOM LINE

Bottom Line Live
LOST CO
BREWI
INDIA

Bottom Line Live

BottomLine Live
KURZWEIL
BOTTOM LINE

BottomLine Live
KURZWEIL
BOTTOM LINE

KURZWEIL PC2

KURZWEIL PC2

BOTTOM LINE
since 1983

BOTTOM LINE
since 1983

* 갤러리 사진을 누르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인천아트플랫폼, 요코하마 뱅크아트1929와 교류 협약 체결

< 요코하마 항구에 자리잡고 있는 뱅크아트1929 외관 >

요코하마는 인천과 비슷한 점이 많다. 수도에 인접한 항구도시이며 공업도시라는 점, 개항장이었다는 점, 300만을 넘는 인구라는 점 등… 실제로 인천과 요코하마는 우호결연 관계를 맺고 시청 직원 간의 파견·교환 근무를 실시하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우호관계 속에서 인천아트플랫폼 역시 요코하마의 문화기관과 교류 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다. 작년(2016)년 7월, 뱅크아트1929라는 곳에서 레지던시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작가를 상호 교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고, 이후 여러 차례의 논의를 통해 2017년부터 바로 실행에 옮기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아트플랫폼 최병국 관장과 필자가 지난 2월 14일 요코하마 뱅크아트1929를 직접 방문하여 '인천아트플랫폼과 요코하마 BankART1929 간 협력 및 교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 협력 및 교류에 관한 협약서에 사인한 뱅크아트1929의 오사무 이케다 디렉터(좌)와 인천아트플랫폼 최병국 관장(우) >

<협약서에 사인중인 최병국 관장과 오사무 이케다 디렉터>

작가 상호 교환 프로그램에 관한 세부 조건과 일정을 조정하였다. 뱅크아트 측에서는 쿠로다 다이스케라는 히로시마 출신의 작가가 6~8월에 인천아트플랫폼에서 창작 및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인천아트플랫폼은 전 입주작가를 대상으로 연내에 요코하마에 머물 수 있는 작가 1인을 모집, 선정하여 일본 체류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트플랫폼 작가가 일본에 가게 되는 시기는 요코하마 트리엔날레가 개최되는 8월~10월이 될 수 있도록 조율중이며, 세부 선정 조건은 늦어도 5월까지는 공고될 예정이다.

뱅크아트1929는 요코하마시가 추진하는 창조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2004년에 설립되었다. 기관 명칭에서 유추해 볼 수 있듯이, 뱅크아트1929가 처음 시작된 장소는 1929년에 탄생한 제일은행과 후지은행 건물 2동이었다. 하지만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도쿄예술대학 영상학과가 이전해 오기로 결정됨에 따라, 뱅크아트1929는 장소를 비워줘야 했고, 2005년 1월 '일본우선회사(NYK : Nippon Yusen Kaisha, 日本郵船会社)'소유의 현재의 건물로 이전하게 되었다. 인천아트플랫폼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D동 건물 또한 1888년에 지어진 '일본우선주식회사'라는 항만업 관계 회사의 업무용 건물이었다는 점에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우연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

뱅크아트1929는 '공설민영'의 장점을 잘 구현하고 있다. 공공(요코하마시 정부)에서 설립하고 민간(뱅크아트1929)에서 운영한다는 뜻으로, 장소(건물)와 운영비의 일부를 요코하마시로부터 지원받고, 자체적인 운영프로그램을 기획, 진행하는 것이다.

< 뱅크아트1929를 관리하고 있는 요코하마 시청 문화관광국 창조도시추진부를 방문하여 직원들과 기념촬영 >

전시, 공연 등의 기획 프로그램, 레지던시 프로그램, 스쿨 프로그램에 더해 펍과 카페, 북샵(출판사업 연계)을 운영하고, 외부행사 유치(대관 및 코디네이션 사업) 및 네트워크 사업을 더해 연 9억원 가량의 자체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하니, 문화기관의 자생력 증진 차원에서도 참고할 만한 기관이다.

인천아트플랫폼은 이러한 요코하마 뱅크아트1929와의 관계를 시작으로, 앞으로 국제교류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입주작가들의 해외 활동의 기회를 늘리고자 한다. 더불어 올 하반기부터는 기관 교류를 통한 작가 상호 교환뿐만 아니라 '국제 큐레이터 초청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2017년은 인천아트플랫폼의 국제적 비상이 시작되는 새로운 해가 될 것이다.

< 다음 전시 준비로 설치 작업에 여념이 없던 뱅크아트 전시 공간(3층) >

< 방문일 당시(2017_02_14) 공연예술마켓인 TPAM2017이 진행중이던 뱅크아트 2층 공간_TAPM2017행사는 뱅크아트의 코디네이터 사업으로 진행된 것이다 >

< 뱅크아트1929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대만작가의 스튜디오 >

---

1) 뱅크아트1929의 설립과정 및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기관 홈페이지(www.bankart1929.com)의 PDF 소개자료「All about BankART」,「왜 BankART1929가 탄생했는가?」,「BankART1929는 어디로 가는가?」및 출장 당시의 면담 내용을 참고하였다.

인천아트플랫폼 이영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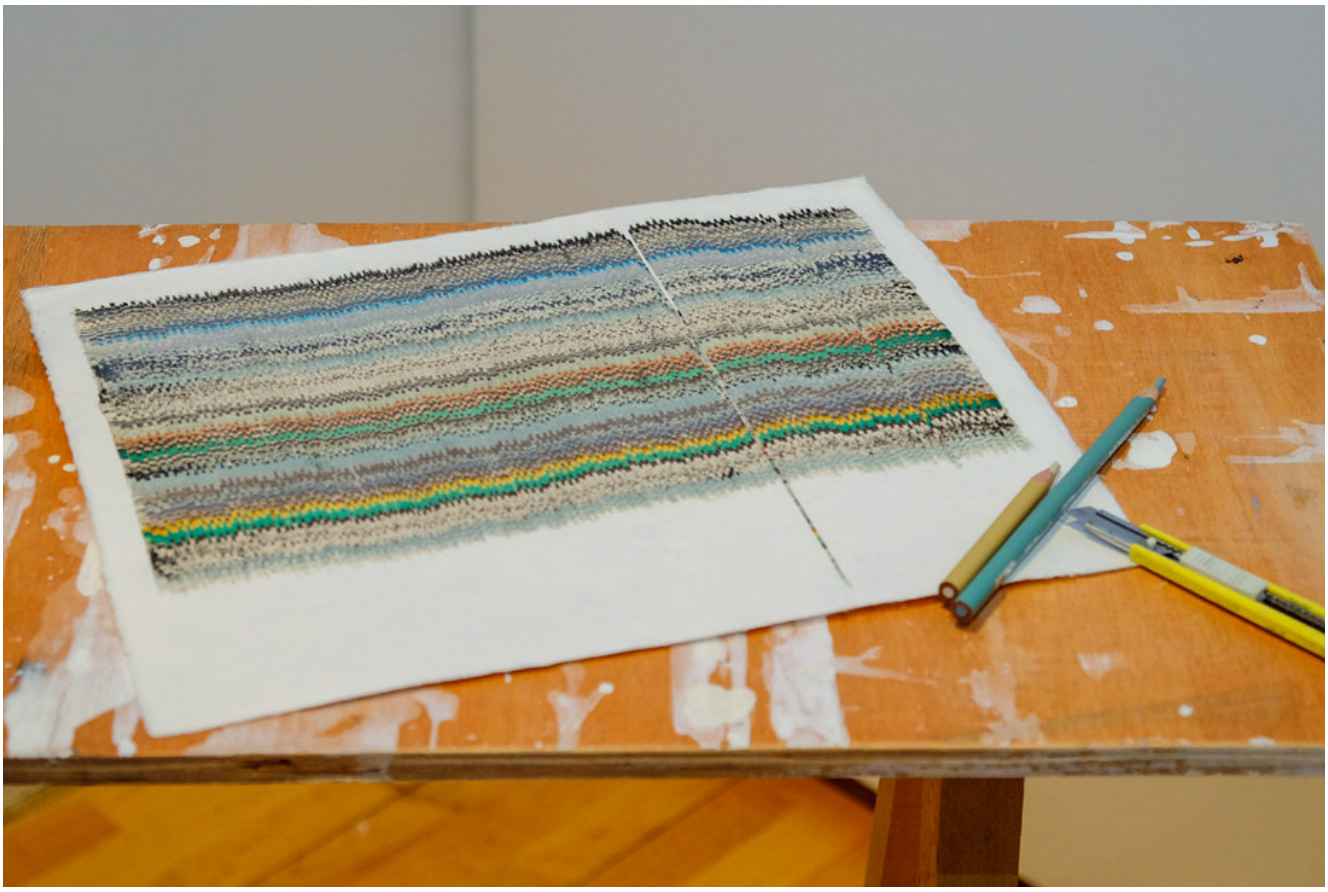
인천아트플랫폼 스튜디오 이사 스케치

촬영, 편집, 구성 : 시민기자 김유라

부평작가열전 네 번째 이야기 화가의 방

4th 부평작가열전
[화가의 방]

갤러리 꽃누리



4th 부평작가열전
[화가의 방]
현실의 환기, 조형의 조화, 예술적 영감으로 감동이 공존하는
화가의 방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다.
부평작가열전은 2014년 시작된 이래'함께 만드는 지역미술의 최선의 조화'를 이루고자 해마다 새로운 주제로 관람객을 만나는 부평구문화재단의 연례 기획전시이다. 전시는 삶과 조형성의 탐구를 통해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창조한 지역의 역량있는 작가들을 집중 조명하는 전시이다. 부평의 작가들의 삶과 지역적 특색이 오롯이 녹아있는 작품들을 통해 지역과 함께 숨 쉬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시간이 될 것을 기대한다.
화가의 방, 작업실이라는 불리는 그 곳은 현실의 환기, 조형의 조화, 예술적 영감으로 감동이 공존하는 공간이다. 또한 캔버스, 물감, 철, 나무와 흙 같은 물질과 붓, 나이프, 끌, 정 등의 연장, 그리고 하루하루 자기 자신이라는 상대와 영혼의 싸움을 벌이는 투쟁을 통해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예술혼이 존재하는 [방]이다.
전시는 이 [화가의 방]에서 탄생된 작품과 함께 그 [방]에서 그들을 존재하게 만든, 육중한 무게의 노동의 흔적과 시간의 흐름이 짐작되는 물질과 연장, 그리고 그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그 어떤 것이 전시된다. 자신만의 작품세계로 진입하기 위해 감각적 현실로부터 스스로 철저히 고립되어 인천, 부평이라는 공간에서 오랜 시간동안 함께 숨쉬며 작업했던 김상숙, 전화순, 정준식, 최금화, 최은자 작가와 부평을 대표하는 젊은 아티스트가 될 부평영아티스트 2기 작가인 김원진, 혜순황 작가의 유화, 수채화, 조각, 설치 등의 다양한 작품으로 '작가열전'이 펼쳐지고, 자신의 자화상과 같은 실존이 투영되는 공간을 이루어내는 물질과 연장, 영감의 도구들이 응집된 [화가의 방]이 눈앞에 열린다. 자신의 길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발전시켜 나가며 새로운 길을 발견하기 위해 부단한 수련을 지속해나가는 부평의 작가들의 기록을 통해 감동을 이루어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TURQUOISE
DERWENT
Drawing Pastels

＊ 갤러리 사진을 누르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대가 알고 싶은 인천 이야기를 만나는 시간 – 문화의 길 총서 북 콘서트 ‘옛 경인가도와 개항장’,

지난 수요일, 보슬비가 내리는 인천생활문화센터 칠통마당에 인천의 이야기 조각들로 꾸며진 보자기 두 개가 펼쳐졌다. 겨울비 때문에 한산하지 않을까 우려했던 콘서트장은 인천의 숨은 이야기를 들으러 온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거렸다. '문화의 길'의 시즌 2『시간을 담은 길』,『시대의 길목 개항장』북 콘서트는 어쿠스틱 통기타 동아리 '레노바레'의 공연으로 시작했다. 공연은 인천의 역사와 문화가 녹아있는 5곡의 노래로 구성됐는데 '연안부두', '사랑밖에 난 몰라', '하얀나비' '사랑은 은하수다방에서'(인천 연인들의 명소였던 '삼화다방'의 이름을 넣은 '사랑은 삼화다방에서'로 개사), '고래사냥'까지 선곡도 실력도 심상치 않았다

인천생활문화센터
칠통마당
매일 쉰나!
그대가 알고 싶은 인천이야기

인천생활문화센터
칠통마당
함께 놀자
매일 쉰나

공연 이후 두 책의 저자가 서로의 책에 대한 질의응답을 나누면서 북콘서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배성수의 '시간을 담은 길'에 등장하는 옛 경인가도는 중구, 남구, 남동구(부평구)를 거쳐 부천시와 연결되어 근대문화의 동맥 역할을 한 인천의 역사가 담긴 곳이다. 저자(배성수)는 책에 수록된 지도와 사진들에 대한 애정으로 자신의 책을 소개하면서 영화가 상영 중이지만 객석에 관객들이 없는 극장 사진과 공동묘지 사진이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이라고 소개했다. 산 자의 공간인 아파트와 죽은 자의 공간인 무덤을 분리한 공동묘지 사진이 필자 자신에게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유동현 저자는 자신을 '팝페라 가수'라고 소개하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대중화된 팝페라가수처럼 책을 통해 대중들에게 편안하고 재미있게 다가가려고 노력한다는 의미라고 한다.

그날 콘서트에서 있었던 질의응답을 일부 소개한다.

Q. 유동현 저자 책 서문에 '쓸모없는 천 쪼가리 모아 예쁜 보자기로 만들고 싶다'라는 구절이 감명 깊었다. 나는 인천에 태어나고 자라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이런 천(자료)을 모으는데 특별한 비법이 있는지 궁금하다.

A. 인천이 살만한 도시이고 충분한 이야기를 품고 있는 도시라는 것을 전하고 싶어서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녔다. 평상시 이런저런 에피소드를 눈여겨보고 모아놓았다가 기억을 꺼내서 연결한 것이다. 그만큼 인천은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도시이다. 여기 계신 분들도 인천의 이야기 조각들로 저보다 더 큰 이불보나 보자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Q. 배성수 저자는 길을 특별히 주제로 선정하게 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다.

A. '타박타박 인천'에서 활동할 때 길에 대한 재미를 느꼈다. 길이라는 곳은 공간을 나누고 그 공간은 다시 사람들로 채워지고, 그 사람들이 채워

진 곳에는 길이 존재한다. 또한 한번 생겨난 길을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길에 대한 생각 때문에 길을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다.

Q. 경인가로의 여러 길 중에 산티아고 순례길처럼 개인적으로 치유를 받았던 길이 있는가?

A. 신포동에서 싸리재를 넘어가는 길이 나에겐 힐링 코스면서 안타까운 길이다. 인천에 처음 왔을 때 본 신포동은 인상깊었던 곳이었는데 세월이 지나 옛날에 봤던 모습과 너무 달라서 인상에 남는다. 인천에서 살아오신 분들은 각자 경험에 따라 힐링의 길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Q. 유동현 저자는 인천에서 살아서 그런지 글 곳곳에 개인적인 경험들이 잘 녹아있다. 그 경험들은 어디서 온 것인가?

A. 사실 저는 인천의 모든 구에서 살아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태어난 곳은 동구이고 중학교는 남구, 고등학교 때는 중구에 있었다. 결혼하고 5년 동안은 북구, 지금은 연수구에 살면서 직장은 남동구에서 다니고 있다. 이러한 운명적인 경험들이 있어 인천에 대한 이야기를 쓸 때 잘 녹아들었던 것 같다.

Q. 유동현 저자의 책에 '사진 신부'의 사진이 실렸는데 이 사진을 고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다.

A. 이 사진은 애틋하기도 하고 자신만만해 보이기도 한다. 즉 모든 걸 품고 있는 사진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저 사진을 표지로 하려 했는데 세로

사진이어서 탈락했다. 그래서 개항장 이야기를 할 때 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일제강점기에 사진 한 장 달랑 교환하고, 얼굴 한 번 보지도 못한 신랑을 찾아서 가는 사진 신부의 모습만 봐도 개항장의 이야기는 다 끝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진을 고르게 되었다.

Q. 저자의 입장에서 책을 읽는 독자들이 좀더 관심있게 봐주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가?

A.(유동현) : 김정곤의 삶의 이야기를 다룬 부분을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는 인천 바다가 만든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항기 인천 제물포의 하역 상인으로 그가 가졌던 기발한 아이디어와 제물포해전의 러시아 함대를 사람을 동원해서 끌어내는 장면들은 지금 봐도 인상적이다. 김정곤이야말로 우리나라 역사를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인물인 것 같다.

A.(배성수) : 저는 독자분들이 책을 모든 부분을 다 보셨으면 좋겠다.(웃음)

저자들의 사인회를 끝으로 이날의 북 콘서트는 마무리됐다. 콘서트를 보는 내내 저자들의 인천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이 느껴졌다. 흩어져있던 인천의 작은 이야기 조각들이 저자의 애정과 관심으로 이어져 예쁜 보자기로 탄생되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도 같았다. 3월 15일(수) 배다리 아벨서점 시 다락방에 가면 문화의 길 총서 북 콘서트를 다시 한 번 만날 수 있다. 인천의 길과 개항장에 숨겨진 이야기가 궁금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환영이다.

최승주 / 인천문화통신 3.0 시민기자

인천아트플랫폼 7기 입주작가 결과보고전

촬영, 편집, 구성 : 시민기자 김유라